



활성화 요원한 당뇨인모임의 실태

최근들어 일반시민의식이 급신장하면서 시민단체의 결성과 활성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당뇨병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뇨병 발병률 증가와 함께 일반대중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환자모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제 사회적인 하나의 흐름으로까지 확대될 추세여서 향후 어떠한 결과물로 잉태될지 자못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어제 오늘 새로이 생긴것이 아니듯이 저마다 총괄적인 당뇨인모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어느 누구하나 선뜻 나서서 한목소리로 실제 행동에 옮기려는 사람이 없어 보는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0년대를 거치면서 국내에 조직된 당뇨인 모임은 모두 합쳐도 열손가락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당뇨인모임 필요성 크게 대두

이중 가장 효시적인 당뇨인 모임은 대구 윤영길박사에 의해 조직됐었던 당뇨인 모임. 이외에 대한당뇨병협회, 상록회, 엄나무회, 무궁화회등 몇몇 모임들이 생겨나 현재 그나마 모임의 존속을 위한 명맥유지에 급급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아예 흔적도 없이 지리멸렬한 실정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더욱이 이들 모임들은 주무관청인 보사부의 허가를 받지않은 그야말로 소규모의 사설적 친목단체에 불과해 대표성이나 공식성을 띠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당뇨인 모임이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몇가지 요인중 하나는 바로 모임을 구성하고 이끌어갈 중심체인 지도자의 부재다.

어느 모임체든 조직과 운용이 모두 원활하기위해서는 회원들을 규합하고 이끌어가기에 어디 한군데 손색없는 지도자격의 사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지도자의 올바른 통솔을 통해 그 모임은 본래 취지에 맞는 눈부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비인격적인 지도자로 인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모임을 이루는 구성원이 당뇨병환자라면 이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 당뇨인의 모임은 일반 대중적인 모임체와 달리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을

담보로 한다. 때문에 회원간의 친목도모뿐 아니라 당뇨병 관리를 위한 과학적 정보교환과 치료를 위한 실행을 함께 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어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킨다.

기존의 당뇨인모임 개선 여지 많아

당뇨인 모임의 지도자가 과학적인 치료방법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그 자신은 물론 회원들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크나큰 위협요인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그동안 원대한 포부를 갖고 요란스레 조직됐다가 일관된 올바른 지도자의 부재로 얼마가지않아 오점만 남긴채 소리없이 스러진 당뇨인모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중에는 당뇨병만이 갖고 있는 특이성도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음에 분명하다.

당뇨병에는 무엇을 먹으면 좋더라는 확인되지못한 낭설



당뇨인 모임



국내의 당뇨인모임은 워낙 모임체의 수도 적을 뿐더러 설사 구성됐다해도 지속성을 갖고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실정. 이러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한 지금의 상태로 지지부진해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어갈 것이 자명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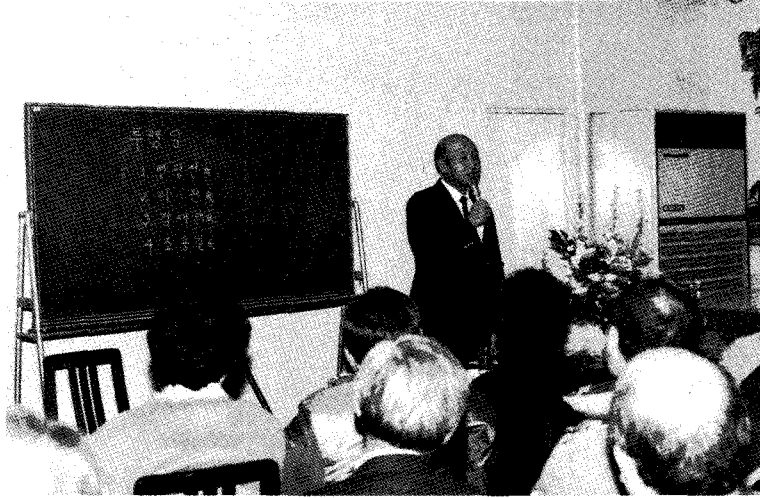
이 참으로 많이 나돌고있다. 아마도 당뇨병만큼 치료법도 많고 치료제도 많은 병도 드물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고치기 힘든 병이기도 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당뇨병환자들은 길에서 만난 어느 누구의 말한마디에도 솔깃해지는 나무랄 수조차없는 속성이 있는 것이다. 하물며 나이가 들대로든 성인들모임을 이끄는 지도자의 말한마디는 그만큼 신뢰성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다.

더욱이 당뇨인의 모임에는 단순히 모임이라는 성격위에 좀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당뇨관리의 전문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세림복지재단의 문계원씨에 따르면 당뇨인 모임의 리더격으로 가장 적임인 것이 바로 당뇨병전문이라고. 이들 당뇨전문의들은 과학적인 당뇨병 치료지식을 토대로 모임을 통해 환자들을 생활전반에 걸쳐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전국 중·소도



정보교환의 장으로 이용돼야

시에 분포돼 맹활약중인 당뇨인모임 지도회장이 당뇨병관련 전문의나 그 지방을 대표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당뇨인들이 대부분이다. 이에비해 국내 당뇨병의사들은 당장의 진료에만 급급해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면서도 미처 생각조차 못하거나 아예 환자들에게 떠넘겨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단 몇몇 당뇨전문의의 경우에만 환자들의 모임에 우호적인 태도로 조언을 해주고있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는 당뇨전문의 1인당 적게는 50여명에서 많게는

200여명이라는 기상천외의 상상도 못할 환자들을 진료해야하는 현진료실태가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바른 지도자상 정립돼야

당뇨인 모임의 지도자 자질 문제와 함께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 바로 회원들 자신의 의식개혁이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으면 당황하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구에게나 희망적인 얘기만하면 매달리게 된다. 사회일각에서는 이러한 당뇨

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자신의 폭리만 취하는 악덕상인이 있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병폐는 그칠줄몰라 매년 매계절마다 당뇨병에 특효라는 미명아래 이름없는 풀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가하면 듣도보도 못한 해피한 잡동사니들이 비싼값으로 거래되는 기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당뇨병환자들이 주위에서 원하는 민간요법들을 적어도 한두번씩은 복용해 보았다는 통계자료가 나올정도다.

이런와중에 당뇨병에 대해 좀더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서로 격려하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보자며 모여놓고는 환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견이나 경험만이 최고인양 주장하고 엉뚱한 관리요법을 내세워 모임의 본래목적을 희석시키는 한편 결속력까지도 와해시키기도 한다.

회원의 자질향상 선행조건



**당뇨병에 대해
좀더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서로 격려하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보자며
모여놓고는 환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견이나 경험만이
최고인양 주장하고 엉뚱한
관리요법을 내세워 모임의
본래목적을 희석시키는 한편
결속력까지도 와해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되기도 한다.**



지난해 송파구 가락동에 당뇨병인의 모임이라는 당뇨병인 교실이 문을 열었다가 최근 폐쇄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당뇨병인의 모임은 국내 최초로 당뇨병인 스스로 만든 교육장소로서 성공적인 활성화가 기대됐었다. 그러나 결국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음으로써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많은 당뇨병인과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셈이다.

이 모임의 주재자인 구광서씨는 그 기간동안 많은 보람이 있었던 만큼 실망과 슬픔 또한 맛보았다고 그간의 심정을 밝혔다.

구광서씨는 당뇨병인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전국의 많은 당뇨병환자들을 규합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전히 자신의 회사금만으로 당뇨병인모임을 끝어나간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벅찼다는 설명이다.

또 모임에 나오는 당뇨병인들의 의타심과 이기심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신이 절박하고 급할때는 찾아오면서도 막상 조금만 당뇨병에 대해 안다싶으면 마치 모든 것을 알고있는 것처럼 턱없는 자만심을 부리고 게을러지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고전했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당뇨병인들이 그동안의 관리기간동안 병원의 당뇨병교실을 통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첫마디가 무엇을 먹어



아유회를 통해 친목도모를 하고있는 당뇨인모임

야 치료됩니까는 식의 엉뚱한 질문을 해오기 일쑤였다고.

결국 많은 당뇨환자들이 머 리속으로는 당뇨병을 이해하고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고 무시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운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것. 따라서 당뇨인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리법을 전파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가이드가 절대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학회의 소극적인 태도 전환 돼야

이외에도 국내 당뇨인모임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근본적 요인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킨다는 취지에서의 당뇨인 모임 결성은 현재 의료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당면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일반 당뇨인모임의 활성화는 이미 구미 선진국에서는 통례화된 사실로 이를 구심점

으로한 많은 활동과 발전이 있어왔다. 일본은 이미 10여 년전에 당뇨병협회가 사단법인체로 구성돼 학회산하로 조직돼 있다. 따라서 당뇨병에 대한 제반학회는 물론 소규모 모임에도 협회소속의 위원단이 학회소속 회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 토론하는게 당연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는 물론 지방의 중·소도시까지도 소규모의 당뇨인 모임이 체계화돼 있어 하나의 전국을 총망라한 조직 계보가 갖춰져있다.

이에반해 국내의 당뇨인모임은 워낙 모임체의 수도 적을 뿐더러 설사 구성됐다해도 지속성을 갖고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실정. 이러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지금의 상태로 지지부진해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어갈 것이 자명한 일이다.

당뇨인모임은 당뇨병치료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보루일 수 있다. 당뇨인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한 구비요건중 최우선적인 문제는 당뇨병 학계가 근본적인 자세정립과 당뇨인을 위한 광범위한 활약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심지어 항간에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뿌리찾기에 급급해 지방을 비롯한 다른 계파의 의사들을 서로 경원하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없지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또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환자들을 마치 자신의 명예와 부를 나타내는 척도인듯 이해관계에 뒤얽혀 환자모으기에 열을 올리는 유치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조차 드는



당뇨인모임은 구성뿐 아니라 중도하차없이 지속성을 갖는 것이 전제돼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뇨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간단한 소식지나 회원지성격으로 제작, 회원들간의 교류확대와 결속력강화를 다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 듯하다.

결국 필요성은 알지만 내일처럼 술선하기는 싫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행태에 다름아니다.

결속력 강화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

또한 모임을 이루는 기본적

· 필수적인 요건인 회원들 자신도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고 모임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참여한 사람들이 당뇨인 모임의 순수성을 오인하고 무엇인가 자신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또는 자신이 아닌 누구인가가 혜택과 이익을 얻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이는 그동안 당뇨인 모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데서 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인 것. 때문에 올바른 당뇨인모임의 구성과 순수한 정책의 객관성있는 운영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환자수용은 물론 활성화를 통한 의식개혁과 이미지쇄신이 더욱 필요하다.

덧붙여 당뇨인모임은 구성뿐아니라 중도하차없이 지속성을 갖는 것이 전제돼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뇨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간단한 소식지나 회원지성격으로 제작, 회원들간의 교류확대와 결속력강화를 다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